

청소년의 은둔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의 차이 검증*

이자영** · 차주환***

I 알기 쉬운 개요

요즘 사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학교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 주로 가정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흔히 '은둔 청소년'이라 부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222명을 대상으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단절·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 등 은둔 관련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후 통계 분석을 통해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묶어 본 결과 안정형(전반적으로 은둔 성향이 낮고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유형), 일상붕괴형(생활 리듬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일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 회피우세형(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을 특히 많이 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유형), 은둔형(사회적 고립, 회피, 생활 불규칙 등 모든 측면에서의 은둔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은둔형' 청소년들이 우울 수준과 회피성 성격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가장 낮았다. '일상붕괴형'과 '회피우세형' 역시 '안정형'에 비해 우울감과 회피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안정형'은 정서적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이해,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은둔 특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개입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내용의 일부를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제1저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연구부 부장, 교신저자, cjh@kyci.or.kr

투 고 일 / 2025. 9. 3.

심 사 일 / 2025. 11. 11.

심사완료일 / 2025. 11. 22.

I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둔 청소년'이 새로운 위험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며 학교, 또래,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되었고, 온라인 수업 장기화, 등교 거부, 게임·인터넷 의존 등의 증가가 은둔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은둔 청소년은 교육, 진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해 사회적 단절·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의 은둔 특성을 측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적용한 결과, 안정형, 일상붕괴형, 회피우세형, 은둔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집단별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은둔형은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가 가장 높고 정서적 지지는 가장 낮았다. 일상붕괴형과 회피우세형도 안정형보다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가 높았으나 은둔형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안정형은 정서적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둔 청소년이 단일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지지가 은둔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은둔형은 고위험군, 일상붕괴형과 회피형은 잠재적 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조기 징후 선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서·행동·사회적 관계·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평가와 집단별 맞춤형 예방·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은둔 특성에 따른 유형별 위험 수준을 규명하고, 조기 선별 및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 설계와 편의 표집으로 인과적 해석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영향 요인과 집단 간 잠재유형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와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령 및 위험 수준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은둔특성, 정서적 지지,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둔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위험군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학교, 또래,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되면서, 청소년의 고립과 은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최지현, 이근영, 2022). 특히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 등교 거부, 게임·인터넷 의존의 증가는 은둔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은둔 청소년은 교육, 진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가족 내 갈등, 심리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은둔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은 국가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사각지대의 위기 취약 청소년으로 ‘은둔 청소년’을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은둔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은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안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 3명 중 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고립·은둔 청소년(10점 만점 중 4.76점)이 일반 청소년(10점 만점 중 7.35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5.03.25.). 이러한 결과는 은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은둔 청소년의 존재가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1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인중과 이시형,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강북삼성병원이 공동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에도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상태의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여인중, 2005). 이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 이상이 사춘기 시기에 출현하며, 주요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우울 증상, 대인공포, 자기혐오, 퇴행, 공격 성향 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은둔의 개념과 기준이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선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정책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상희, 이윤주, 2024). 특히 은둔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가족 외에는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학업 중심이거나 일시적 지원에 그쳐 장기적 은둔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서정아, 강경균, 최홍일, 허창수,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은둔 청소년을 개념화할 때 은둔 기간, 은둔 상태, 사회적 접촉 범위를 핵심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인중(2005)은 은둔 청소년을 “친구가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며,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윤철경과 서보람(2020)은 기준을 6개월로 확장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 등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한 사람” 혹은 “6개월 이상 집에서 머물며 가족 이외와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김혜원 외(2022)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일정 기간(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동안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만 머물며,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은 가능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는 맺지 않으며,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은둔 연구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은둔 지속기간은 3~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학업 중단 상태로 확인되었다(이상희, 이윤주, 2024). 최근에는 단순한 공간적 고립을 넘어, 심리적 회피, 정서적 위축, 생활 리듬 붕괴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서정아 외,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의 발굴 및 예방적 관점에서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은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고,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은둔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자 또는 기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는 1차적으로 은둔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관여하기도 하고, 은둔 상태가 지속되면서 2차적으로 정신장애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厚生労働省, 2010). 또한, 최근 일본 연구에서는 면담이 가능한 은둔형 외톨이의 다수가 정신장애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近藤 외, 2013). 따라서 은둔을 정의함에 있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입원을 통해 외부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등 이들 장애의 본질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이 관여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은둔 청소년 개념에는 이들 장애를 제외하고 별도의 심층적인 심리 평가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은둔 청소년의 낙인(stigma)을 줄이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하다. 다만,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의 니트(NEET) 비율은 18.9%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13.9%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기현 외, 2018). 또한 15~29세 청년 중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비율은 2.7%로 약 29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기현 외, 2020). 더 나아가 18~24세 청년의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1.97%로 보고되었으며(윤철경 외, 2022), 이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청소년 인구 838만 3천여 명(여성가족부, 2022) 가운데 약 10만 명 정도가 은둔형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 시기를 청소년기로 보고하고 있다(김신아, 2019;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양미진 외, 2007; 오상빈, 2020; 이재영, 2014; 이지민, 김영근, 2021; 허경운, 2005).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 급격한 인지·정서·행동 발달이 일어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다(장휘숙, 2004). 그러나 은둔 청소년은 일정 기간(3~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며, 식사 및 수면 패턴의 불규칙성, 인터넷·스마트폰 몰입, 외모 및 위생 관리 소홀 등의 특징을 보인다(김혜원, 202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은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따돌림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광주광역시, 2020). 특히 은둔 생활은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까지 이어지며, 우울과 회피 경향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유경, 박희진, 2025). 즉,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불안, 회피, 자살충동 등의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피해의식, 외로움, 열등감, 좌절감, 무망감 등 부정적 자가지각에 빠져 청년기와 성인기까지 문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김혜원 등, 2022).

또한 은둔 청소년이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성장 과정에서의 대인관계 상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등을 꼽고 있다(이영식, 최태영,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나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회피성 및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하수홍, 장문선, 2013). 반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정서적 지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서적 문제 발생 시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아,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은둔 및 고립 경험이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은둔 청소년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함께 이들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은둔 청소년 관련 연구는 주로 선별 척도 개발, 발생 요인, 심리적 특성의 기술적 탐색에 그쳐, 이들의 은둔 특성 요인, 정신건강 양상, 가족 및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한 체계적 유형 분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차주환 외(2024)는 현장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은둔 청소년 선별척도를 개발하면서, 청소년의 은둔 특성을 사회적 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별 절단점을 제시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은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지닌 본질적 특성과 회복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다.

은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가정 및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학교, 또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인관계, 학업 수행,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 은둔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더불어 불규칙한 생활방식은 은둔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저하를 초래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은둔 청소년의 외현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은둔의 발생 원인과 지속 요인, 그리고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은둔 청소년을 선별하는 데는 유용하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은둔 특성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지원은 실제 상담·복지 현장에서 맞춤형 개입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은둔 청소년을 다차원적 기준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은둔 청소년 유형 분류 연구는 청소년 발달 경로의 이해뿐 아니라 고위험군 조기 선별, 정책 자원 배분, 개입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예를 들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은둔 청소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은둔의 지속성으로 작용하는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그리고 회복 가능성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지지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된다면, 기존의 획일적 접근을 넘어서 가장 취약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은 다양한 변인을 토대로 개인이 속하는 잠재 집단을 탐색할 수 있어, 청소년 정책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해 은둔 청소년을 세분화하고, 하위 유형별로 정신건강(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김혜원, 2020; 오유경, 박희진, 2025; Coplan & Bowker, 2021)에서 지적하듯, 은둔 특성은 청소년의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척도에 회피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프로파일 유형 간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행동적 수준의 회피를 포함하고 있는 고립·은둔 척도의 잠재집단 유형이 성격적 수준의 회피를 측정하는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 친구, 교사, 상담자 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이해, 공감, 격려)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둔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각 집단의 위험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의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이라는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은둔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한 모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파일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규명된다면, 은둔 청소년의 중재전략 및 프로그램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은둔 청소년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며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은둔 청소년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서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22명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청소년들이 일상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은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설문 홍보하였다.

설문 참여 전 연구 목적, 절차,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안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관 기간(5년) 이후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하였고, 설문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은 약 5분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222명 중 여학생은 99명(44.5%), 남학생은 123명(55.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18.03세였다. 연령별로는 만 16세 31명(14.0%), 만 17세 38명(17.1%), 만 18세 45명(17.1%), 만 19세 32명(14.4%) 등이 주요 분포를 보였다. 재학 여부에 있어서는 145명(65.3%)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77명(34.7%)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여부에 따라서는 47명(21.2%)이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5명(78.8%)은 은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1)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차주환 외(2024)가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하위요인인 사회단절 및 고립(5문항), 회피(5문항), 불규칙한 생활방식(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단절 및 고립 요인의 대표 문항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회피 요인의 대표 문항은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 요인의 대표 문항은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를 들 수 있다. 응답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상태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매우 해당되는 경우 4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직관성을 위해 0-4점을 1-5점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이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차주환 외(2024)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사회단절 및 고립 .892, 회피 .867, 불규칙한 생활방식 .809로 보고되었다.

2)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문항 15개 중에서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에 사용된 문항 10개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1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8로 산출되었다.

3) 회피성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란, 지나친 대인불안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부적절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한 모습을 보이는 인격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본 연구에서는 은둔 청소년의 회피성 성격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검사서 회피성 성격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1 ~ 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6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산출되었다.

4) 정서적지지

정서적 지지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믿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구자은, 2000).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제세령 등(2022)이 개발한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 중 정서적 지지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화, 고립, 정서적 지지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서적 지지 요인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0=해당되지 않는다 ~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plus 8.0(Muthén & Muthén, 2017)을 활용하여 은둔 청소년의 은둔 특성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SPSS 22.0을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통해 연령에 따른 변인들 간의 평균 차 그리고 도출된 잠재집단 간 우울 및 회피성 성격장애 수준의 평균 차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최적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첫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같은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값이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낸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둘째, 집단 수 증가에 따른 모형 비교를 위해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할 경우 더 많은 집단 수가 적합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셋째, 잠재프로파일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5% 미만인 집단은 과도한 집단 수 설정으로 해석과 일반화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Ferguson & Moore, 2020). 마지막으로 분류의 명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 값을 참고하였으며, 0.80 이상일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하였다(Clark & Muthen, 2009).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각 변인에 대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전체 참여자를 청소년(만 18세 이하)과 청년(만 19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청소년과 청년에 따라 각 변인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에 따른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0.962$, $F(6,215)=1.43$, $n.s.$). 구체적으로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 회피성 성격장애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변량 검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04\sim 1.65$, $n.s$).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명	구 분	전체 (N=222)	만18세 이하 (N=136)	만19세 이상(N=86)
		M(SD)	M(SD)	M(SD)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사회단절 및 고립	2.49(1.08)	2.55(1.09)	2.37(1.06)
	회피	2.97(1.08)	3.04(1.12)	2.85(1.02)
	불규칙한 생활방식	2.63(1.18)	2.62(1.20)	2.66(1.16)
	전체	2.70(0.99)	2.74(1.01)	2.63(.98)
	우울	2.35(0.69)	2.30(.66)	2.32(.67)
	회피성 성격장애	2.31(0.66)	1.49(.44)	1.89(.52)
	정서적 지지	1.89(0.48)	1.89(.52)	1.90(.40)

주. 정서적 지지는 0-4점 척도임.

2.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및 집단별 특성

은둔 청소년의 은둔 특성별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2-5집단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집단 모형은 AIC(1803.355), BIC(1878.214), SSABIC(1808.494)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Entropy 또한 0.9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5집단 모형은 LMR-LRT와 BLRT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5개 집단 중 한 집단의 비율이 전체의 3.1%로 해석의 안정성 및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집단 모형은 AIC(1836.000), BIC(1917.248), SSABIC(1860.204)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고, Entropy(.883)가 높은 수치를 보여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냈다. 또한, LMR-LRT와 BLRT 결과를 보면, 2집단에서 3집단, 그리고 3집단에서 4집단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집단이나 3집단에 비해 4집단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표, 분류 정확성, 분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4집단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1 vs.) 2	(2 vs.) 3	(3 vs.) 4	(4 vs) 5	
AIC	1808.650	1880.466	1856.000	1803.355	
BIC	1893.717	1928.104	1917.248	1878.214	
SSABIC	1814.490	1883.737	1860.204	1808.494	
LMR-LRT(<i>p</i>)	<i>p</i> <.001	<i>p</i> =.0346	<i>p</i> =.0518	<i>p</i> =.726	
BLRT(<i>p</i>)	<i>p</i> <.001	<i>p</i> <.001	<i>p</i> <.001	<i>p</i> =.727	
Entropy	0.881	0.876	0.883	.985	
분류율(%)	1	38.7%	25.3%	48.7%	13.0%
	2	61.3%	16.9%	16.2%	3.1%
	3		57.8%	24.9%	21.6%
	4			10.1%	36.6%
	5				25.7%

표 2를 바탕으로 최종 확인된 4개 집단 유형의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은 은둔 부적응 하위요인 즉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안정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사회단절 및 고립과 회피는 높지 않으나 불규칙한 생활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일상생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유형으로 일상붕괴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회피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단절 및 고립이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회피 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은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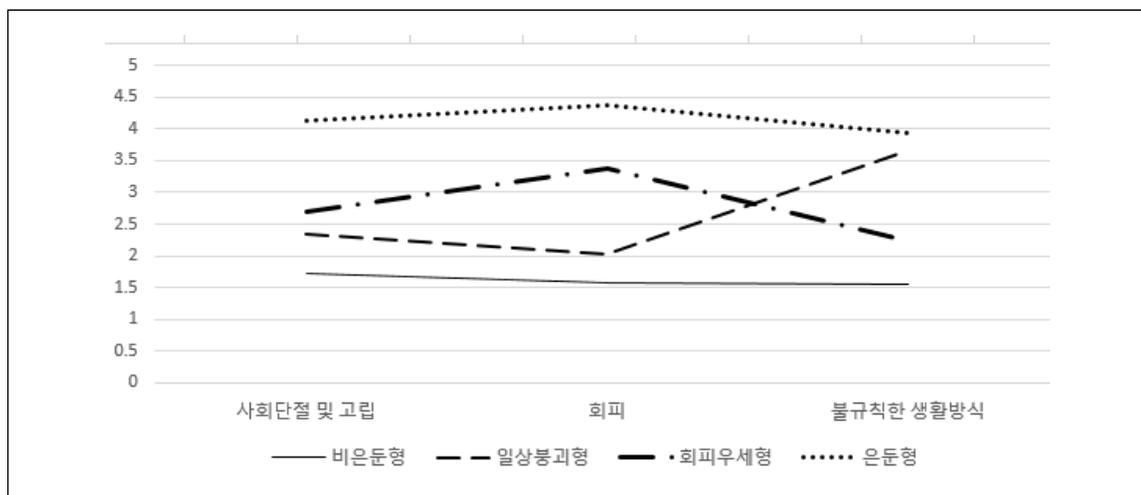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은둔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3.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차이검증

청소년 은둔 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간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Levene 검정, $p < .001$), 이에 따라 Welch의 수정된 일원분산 분석(Welch's ANOVA)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우울($F=42.76, p < .001$), 회피성 성격장애($F=47.50, p < .001$), 정서적 지지($F=12.63,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후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지지 차이검증 (N=222)

	집단 1: 적응	집단 2: 일상붕괴	집단 3: 회피우세	집단 4: 은둔	F	Scheffé
	M(SD)					집단
우울	19.10(4.64)	25.51(7.32)	24.48(5.02)	28.55(4.87)	42.76***	4>2,3>1
회피성 성격장애	13.52(3.50)	17.46(4.59)	18.00(3.85)	20.83(3.74)	47.50***	4>2,3>1
정서적 지지	10.22(2.43)	12.32(2.79)	12.36(2.29)	12.51(3.07)	12.63***	1>2,3,4

*** $p < .001$

은둔 집단(집단 4)은 우울, 회피성 성격장애, 정서적 지지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 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지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붕괴 집단(집단 2)과 회피우세 집단(집단 3)은 은둔 집단(집단 4)에 비해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적응 집단(집단 1)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 일상붕괴 집단(2)과 회피우세 집단(3)은 은둔 집단(4)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응 집단(1)에 비해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적응 집단(집단 1)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는 낮고, 정서적 지지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은둔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심리적 특성과 정서적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소년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일원배치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분류 정확성, 분포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잠재집단은 4집단(안정형, 일상붕괴형, 회피우세형, 은둔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방식 등 모든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우울 수준이 가장 낮고 정서적 지지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집단으로, 은둔 위험이 낮은 저위험 군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4개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정서적 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은둔 부적응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자 은둔 부적응 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선행 연구(장원빈, 문의정, 2024; Yung, Wong, Ho & Molassiotis, 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안정형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일상붕괴형은 고립이나 회피 수준은 높지 않지만, 불규칙한 생활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일상생활의 구조적 리듬이 무너진 청소년들이다. 일상붕괴형은 안정형보다는 우울이나 회피성 성격장애 수준이 높지만, 은둔형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아직 학업이나 대인관계 기능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지만, 밤과 낮이 바뀌는 등 기본적인 생활리듬이 무너지고 자기 관리의 어려움과 정서적 어려움을 동반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밤새 게임이나 SNS 등을 하면서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패턴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위축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은둔을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노가빈 등, 2021). 특히 기존의 개입이 대인관계 등 사회적 접촉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면, 본 연구 결과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Ferguson와 Moore(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세 번째 집단은 회피우세형으로 회피 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단절 및 고립은 중간 정도이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은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형인 청소년들은 아직 은둔 상태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두기나 회피 행동을 하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거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으

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회피를 은둔 위험의 주요 기제 중 하나로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방식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둔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일 경로가 아니라 일상붕괴형, 회피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은둔형 집단은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우울과 회피성 성격장애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가장 심각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동기가 낮고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은둔형 집단은 정서, 관계, 생활 등 다각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고위험군 집단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둔 부적응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우울 증이나 불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Malagón-Amor et al., 2015; Neoh et al., 202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은둔으로 접어드는 다각적 경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상붕괴형’과 ‘회피형’은 아직 심각한 은둔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의 불규칙 또는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은둔 위험과 관련된 조기 징후를 나타내는 집단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습관의 불안정성과 회피가 단독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은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은둔형 청소년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생활방식의 불안정, 회피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각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과 다변화된 개입 전략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네 집단 중 안정형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정서적 지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정서적 지지는 은둔 위험을 낮추는 주요 심리·사회적 자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및 현장에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서 정서적 지지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관계 증진 프로그램, 또래상담 활성화, 멘토링 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일상적 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은둔 위험 청소년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은둔형 집단은 우울, 회피적 성격 경향, 정서적

지지 부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증척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일상붕괴형과 회피형은 은둔으로 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서, 행동, 사회적 관계,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각 집단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활성화함으로써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설계에 기반하고 있어 은둔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인과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상붕괴형’이나 ‘회피형’ 집단의 청소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악화될 경우 은둔형으로 발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일 집단을 추적하여 은둔으로의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은둔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제 은둔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편의 표집을 활용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 환경, 또래 관계, 사회경제적 배경 등 은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확률 표집을 실시하고, 개인·가족·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청소년 은둔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둔 특성의 잠재유형을 탐색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이 실제 은둔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은둔 상태 청소년의 표본을 확대하여 분석을 재검증하고,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유사한 잠재유형이 재현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은둔 위험 수준에 따라 잠재유형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분류하였으나,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는 청년기 은둔과 증척되는 연령대로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은둔과는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하와 만 19세 이상인 집단을 구분하여 변인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집단별 표본 수가 작아 집단별 잠재유형 검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예: 만 18세 이하 청소년 vs 만 19세 이상 청년)에 따른 잠재유형의 구조적 동일성 여부 또는 차별적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 (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아 (2019).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0.8.25.).
- 김혜원, 조현주, 김지연, 김연옥, 김지향, 박찬희 (2022). 은둔형 외톨이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6), 149-156.
- 남태현 (2015).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관계성을 통한진정성의 매개된 조절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73(2), 57-81.
- 박지원 (199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73-288.
- 서정아, 강경균, 최홍일, 허창수 (2024).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은둔형 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2), 119-134.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서울: 지혜문학.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0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806
- 연합뉴스 (2025.03.25.).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GYH20250325000800044>
-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서울: 솔학.
- 오유경, 박희진 (2025). 은둔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은둔 초기와 중기 이후의 비교분석. **청소년문화포럼**, 82, 134-170.
- 윤철경, 권세진, 박현정, 서희정, 이정현, 황현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서울: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 이상희, 이윤주 (2024). 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청소년의 은둔 예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219-249.
- 이영식, 최태영 (2022).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 우리모두의 이야기.** 서울: 학지사.
- 이지민, 김영근 (2021).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61-91.
- 장원빈, 문의정 (2024). 청년의 은둔이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동료와의 소통 단절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2(4), 135-146.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제3판.** 서울: 박영사.
- 정경아 (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주환, 이자영, 백정원, 편여울강, 어혜원 (2024). 은둔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32(2), 251-269.
- 최지현, 이근영 (2022).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유형화 연구: 경기 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9, 1-33.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Author.
- Coplan, R. J., Bowker, J. C. (Eds.). (2021).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John Wiley & Sons.

- Ferguson, S. L., G. Moore, E. W., & Hull, D. M. (2020). Finding latent groups in observed data: A primer on latent profile analysis in Mplus for applied resear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4*(5), 458-468. doi:10.1177/0165025419881721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The development of heavy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from ages 18 to 37 in a U. S. national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2), 290-300. doi:10.15288/jsa.2000.61.290
- Malagón-Amor, Á., Córcoles-Martínez, D., Martín-López, L. M., & Pérez-Solà, V. (2015). Hikikomori in Spain: A descrip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5), 475-483. doi:10.1177/0020764014553003
- Neoh, M. J. Y., Carollo, A., Lim, M., & Esposito, G. (2023). Hikikomori: A scientometric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7), 5657. doi:10.3390/ijerph20075657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doi: 10.1080/10705510701575396
- Yung, J. Y., Wong, V., Ho, G. W., & Molassiotis, A. (2021).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hikikomori through the lens of the CHIME framework: connectedness, hope and optimism, identity, meaning in life, and empowerment: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9*(1), 104.
- 近藤 雄二, 松本 俊彦, 井上 祐紀, & 山田 和男. (2013). 地域におけるひきこもり支援の現状と課題. 『精神医学』, 55(2), 123-130.
- 厚生労働省 (2010). 『厚生労働白書: 厚生労働省改革元年』. 일본 후생노동성.

ABSTRACT

Latent profiles of adolescents' reclusive traits: Differences in depression,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al support

Lee, Jayoung* · Cha, Juhwan**

With increasing attention to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social isolation, “reclusive adolescents” have emerged as a newly recognized at-risk population.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isolation by normalizing non-face-to-face interactions, weakening connections with school, peers, and community, and increasing avoidance behaviors such as prolonged online learning, school refusal, and excessive internet or gaming use. Reclusive adolescents are likely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various domains including education, career, and social relationships, necessitating early intervention and tailored suppor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reclusive adolescents and to examine differences among these profiles in terms of depression,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 total of 222 adolescents aged 13 to 24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and the Reclusive Youth Screening Scale was used to measure social disconnection/isolation, avoidance, and irregular lifestyle pattern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identified four subgroups: adaptive, daily-life disruption, avoidance-dominant, and reclusive. Comparative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in the reclusive profile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on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s well as the lowest levels of perceived emotional suppor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heterogeneity of reclusive adolescents and highlight the protective role of emotional support in mitigating mental health risk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clusive subgroups as a high-risk subgroup and the daily disruption and avoidance subgroups as potential risk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early screening of warning signs. Accordingly, multidimensional assessment encompassing emotional, behavior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ailo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ch group, are required. This study identified the reclusive subgroups as a high-risk subgroup and the daily disruption and avoidance subgroups as potential risk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early screening of warning signs. Accordingly, multidimensional assessment encompassing emotional, behavior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ailo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ch group, are required. The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early screening and customized intervention strategies by identifying risk levels based on types of reclusive traits. However, the use of a cross-sectional design and convenience sampling limits causal interpretation and generalizability, and various influencing factors and comparisons of latent types across groups were not sufficiently examined.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longitudinal designs and representative sampling to comprehensively verify differences by age and risk level.

Key Words: adolescents, reclusive traits, emotional support, latent profile analysis

* Hanyang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Counseling and Welfare Research Division, Manager